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강명관



'맹자의 첫머리에 양해왕과 맹자의 대화가 나온다. 양해왕이 묻는다.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마음을 다 쏟고 있다. 하내 지방에 흥년이 들면 백성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 지방의 곡식을 하내 지방으로 옮겨준다. 하동에 흥년이 들어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웃 나라의 정치를 보건대 나처럼 마음을 쓰는 나라가 없건마는, 이웃나라의 백성이 줄어들지 않고, 내나라의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맹자는 답한다. "당신이 잘한다는 정치가 무어 그리 대단할까? 이웃나라와 오십보백보가 아닌가."

평소 백성을 학대하여, 개와 돼지가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먹여도 제지 않을 때마다,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이 길거리에 나뒹굴어도 참고를 열어 구제할 줄 모른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흥년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무어 잘 한 것이 있단 말인가?" 양해왕의 답은 없다. 그는 아마도 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의 증가는 선정(善政)의 지표였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

은, 임지로 떠날 때 임금 앞에서 지방 행정의 요체인 수령질사(守宇七事)를 위하여 하였다. 농간의 흥성, 호구의 증가, 학교의 발달, 군정의 절정, 부역의 균등화, 송사의 간략화, 간활의 면출이다. 두 번째가 호구, 곧 인구의 증가다. 인구의 증가를 얼마나

## 노비를 낳으란 말이냐

중요하게 여겼던가를 알 만하지 않은가.

선정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호적에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다산은 '호적의(戶籍議)'에서 호적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로, 누락된 호(戶)와 인구, 실상과 맞지 않는 호(虛戶), 이중으로 기록된 호, 직명과 역명(役名)이 사실과 다른 호의 존재를 꼽고 있다. 이 중 실상과 맞지 않는 호(虛戶)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수령질사의 '호구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수령은 자신의 임기 중 호구가 줄어들면,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는 호구,

줄 군사가 될 존재가 곧 백성이었다. 백성이 늘어나면 왕과 양반의 이익도 그만이 늘어날 것이다. 호구증을 주문한 내심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고, 미구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다지 효과적일 것 같지 않은 유인책을 쓰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도 한다.

한데, 무조건 낳으면 되나? 혼자 벌어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에 뒷벌이를 하는 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 핵가족시대에 누가 키울 것인가?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면 학벌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에 사교육비를 페부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좋은 일자리가 드물어진 사회에서 대학을 나온들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 용케 취업을 한들 마흔을 넘으면 잘리는 인생이다. 어느 순간 비정규직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쌓아놓은 무더기 재산이 없으면, 곧장 지옥이 되는 세상이다. 지옥에 사는 사람더러 지옥에 살 자식을 낳으라 하면, 과연 낳겠는가, 아니 낳겠는가?

인구를 늘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맹자의 말을 들어보자. 백성들을 전쟁과 부역에 몰아넣지 말고 편히 농사짓게 하여, 그들이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원리는 이처럼 간단하다. 국민이 넉넉하고 안정된 삶, 즐거운 삶을 살게 한 뒤에 출산 장려책을 써야 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텔끝만큼도 배려하지 않고, 불안과 경쟁을 일상화시키고는, 아이를 더 낳으라니, 흡사 양반을 위해 노비를 낳으라는 말로 들린다. 누구 좋으라고 노비를 낳으란 말이냐? <부산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영·호남 격차 키우는 '5+2 광역경제권'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영·호남 간 정부 지원 예산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 합의내역'에 따르면 올해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382억원으로 영남권 656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추진 프로젝트도 호남권은 4건에 그친 반면 영남권은 8건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역시 영남에 집중돼 지역격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영남권에 지원된 균특예산은 1천171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596억원에 그쳤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마저 호남권이 10% 이상 높아 재정이 악화된 지역자체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마저 상대적으로 낙후가 깊은 영남에 집중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예산 배정과 인사 등에

## 지역상권 보호, 말 대신 행동 보여라

광주지역 상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생존권과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SSM(슈퍼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골목상권까지 붕괴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이 생존권 지키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지역 소상인과 시민단체는 최근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칭)'를 결성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앞으로 대기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합리적 규제법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 등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은 성장이 한정된 지역시장의 소비 지출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지역 상권의 위축을 부른다. 2004~2008년 전국 대형마트들이 9조2천억원의 총매출액 증가를 보인 반해, 대형마트는 9조3천억원의 총매출액 감소를 나타냈다. 1996~

2004년 할인점이 247개 늘어날 때 영세 소매상은 8만개가 감소됐다. 그래서 '대형마트 1개 생기면 동네슈퍼 300개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광주지역의 대형마트(SSM 포함)는 25개에 이르고 있다. 대형마트의 총매출액 비중과 증가 속도를 감안한다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공략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역상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를 비롯,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의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치기 수준이거나 생색을 내는 수준이다.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기 회복은 원원하다. 국회는, 정부는 지역상권이 죽는다며 민생 타령만 하지 말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문상필



모두가 잘사는 사회,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21세기 사회 복지의 목표가 됐다. 이는 곧 어려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은 열악하고, 사회복지지지 생각하면 가난한 자만의 문제,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어딘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지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보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직업사회에서는 그다지

구나 처음엔 심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절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절망적인 사고와 돈 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물바른 재활이 되겠는가? 절망에서 재활하여 희망을 키우고 사회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기르는데 사회복지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사회에 희망을 돌려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 사회복지사는 희망이고 꿈이다

환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식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인식들로 인해 많은 업무에도 그에 따르는 처우 또한 열악한 편이다.

이런 열악한 처우와 고단한 업무에도 사회복지지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수요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다.

15년 전의 일이다. 시각장애인 및 명과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 걸 보았다. 몇몇 장애인은 그냥 놀고 먹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히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보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회사업가는 열심히 무언가 해서 희망을 갖자고 설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놀자는 부류는 아직도 국민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 보자던 주장을 듣고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열심히 살아서 내일을 준비하자던 사회복지사의 말은 희망이 되었고 꿈이 된 것이다.

<광주복지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 기고

정종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농업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 상승폭이 0.74°C인 반면, 한반도는 1.5°C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감귤이 전남·경남에서도 재배되고 있고, 내한성이 약해 주로 남부지방에서 생산됐던 쌀보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사회에 희망을 돌려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또 농업은 대기를 정화해 기후순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산의 나무들은 산소를 뿜어냄으로써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돼 있다.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고 논에 가득이 되면 고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지하수원이나 산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100㏊의 논에 10cm 깊이로 물을 담는다면 10억t을 저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농업은 대기를 정화해 기후순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산의 나무들은 산소를 뿜어냄으로써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오염된 대기를 분산, 희석시켜 대기를 정화해주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낸다.

농촌은 환경보전의 역할을 한다.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생태계 유지를 위한 환경보전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농촌은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산과 강을 통해 인간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봄·여름에는 푸르름을, 가을에는 황금 물결이 이는 경관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져다준다. 아름다운 강산과 맑은 공기는 깨끗한 물, 산천초목이 우러내는 그윽한 향기는 저절로 인심을 순화시키고 고향을 사랑하게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농촌 어머니니(A-munity·친근성)가 바로 이것이었다.

굳이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지 않아도 농업·농촌은 국토의 정원사로, 문화와 전통의 보존자로, 그리고 환경생태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우리 세대가 자키고 보전해 후손에게 고이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임에 분명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 농업·농촌은 국토의 정원사

자원 지향을 변형시키고 있어,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피할수는 '식량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쌀 95%를 제외하고는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며지않아 식량 대량의 단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23.4kg 줄어든 75.8kg이었다. 인스턴트와 대체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다양한 유류와 가공품 등이 쌀 소비를 위협한 때문이다.

바야흐로 쌀농사를 비롯한 우리 농업의 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쌀농사 등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농업이 수행해온 공의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이유다. 농업은 인류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을 담보로 존재한다. 우리 농촌은 우리 세대가 자키고 보전해 후손에게 고이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임에 분명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 '자원봉사' 베푸는게 아니라 나눔이다

최근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봉사를 통해 느낀 점은 봉사활동이 막연한 생색내기식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보살펴야 하는 적지 않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은 혼자서 거기에서는 할머니가 그날 따라 건강이 썩 좋지 않아 보여 우리는 즉시 복지관에서 훈련장을 빌려와 근처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를 정밀검진한 의사는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해 우리는 즉시 119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모셨고 그 후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이 사회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구나'하는 것이다. 그분들을 돌보면서 나의 인생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자성하게 된다. 인생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니 말이다. 사회공헌의 진정한 뜻은 사람의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 사랑의 나눔, 그 자체 아닐까.

<민경화·광주시 산정동

찰강왕 카네기와 롤웰 가(家) 출신의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최고 갑부인 빌 케이츠와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에 서 문근영과 가수 김강훈, 제주 출신 기생 김만덕까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대중에게 '기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찰강왕으로 천문화적인 부를 쌓아 올린 카네기는 주로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기부를 실천했고, 그는 2천500여 곳의 도서관과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과 연구소, 5천여 개의 교회도 지어 사회에 기부했다.

최근 빌 케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부로 인해 각각 4개 자선단체에 각각 기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명인사의 기부가 심심치 않게 화제에 오른다. 광주 출신 문근영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8억5천만 원을 '의병'으로 기부한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칭송을 받았다. 자신은 전세계에 살며 태안 어민에게 수억 원을 기부한 가수 김강훈도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과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최근 낙관 태개책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다.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이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